

“위축되는 농축산물 도매시장, 공공성 높여야 활기”

광주·전남 6곳 거래액 1년 새 207억원 ↓...2016년부터 실적 감소 농식품부 심포지엄...경매과정 공개, 정가·수의 거래 활성화 노력 필요

최근 10년 동안 광주·전남에 있는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3곳 가운데 각화시장은 거래량이 줄고, 광주서부·순천 도매시장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법정 도매시장을 포함한 광주·전남 6개 도매시장의 거래금액은 1년 새 207억원 감소했다. 2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도매유통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광주·전남 6개 농산물 도매시장 거래량은 58만428t으로, 1년 전보다 2.6%(1만4702t) 증가했다. 광주·전남에는 공영 도매시장 3곳(광주각화·광주서부·순천)과 일반 법정 도매시장 3곳(광주축산물·목포·여수) 등 6개 농산물 도매시장이 있다.

전국에는 공영 도매시장 33개소와 일반 법정 도매시장 13곳, 민영 도매시장 3곳이 있다. 전년보다는 거래량이 소폭 증가했지만 6개 시장 거래실적은 58만6690t(2015년)→58만2386t(2016년)→58만1581t(2017년)→56만5726t(2018년) 등 내리막길을 걸었다. 지난 2019년 광주·전남에서 서부 도매시장이 42.8%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실적을 올렸다. 서부 시장 거래량은 1년 전보다 5%(1만1856t) 증가했고, 10년 전인 2009년보다는 25.6%(5만693t) 늘었다. 하지만 각화 도매시장 거래량은 매년 감소 추세다.

지난 2009년 각화시장 거래량은 24만7000t이었지만 10년 뒤에는 22만9924t으로, 6.9%(-1만7076t) 감소했다. 1년 전(23만161t)에 비해서도 92t(-0.04%) 줄어 들었다. 각화시장 거래량은 지난 2015년 24만975t에서 이듬해 23만9889t으로 24만선이 붕괴된 뒤 내림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2017년 23만9444t, 2018년 23만161t, 2019년 22만9924t 등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 다른 공영 도매시장인 순천농산물도매시장은 10년 전보다는 거래량이 5234t(7.1%) 증가했지만, 지난 2015년 8만1294t 이후 8만선을 계속 밀고 있다. 지난 2019년 거래량은 7만9234t으로, 1년 전보다는 3.6%(2779t) 증가했다. 일반 법정 도매시장 가운데 광주축산물도매시장은 10년 새 거래량이 무려 80.7% 감소했다. 지난

2019년 거래량은 981t이었는데, 2009년 5078t의 5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전년에 비해서는 11.0%(-121t) 감소했다. 목포 농산물도매시장은 거래량이 10년 전보다 3분의 1이 감소했고, 여수는 반토막(-53.1%)났다. 목포 도매시장 거래량은 1만8644t으로, 10년 전(2만7102t)보다 31.2%(-8458t) 줄어 들었다. 지난 2019년 여수 거래량은 2952t으로, 10년 전 6294t의 절반으로 줄었다. 한편 6개 시장의 거래량은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거래금액은 오히려 감소했다. 2019년 6개 시장 거래금액은 9858억원으로, 1년 전(1조64억원)보다 207억원(-2.1%) 줄었다. 각화 농산물 도매시장 거래금액은 전년보다 5.2%(-197억원) 감소한 3586억원이었고, 서부 도매시장은 4680억원(-0.03%), 순천 1252억원

(0.2% ↑), 목포 251억원(1.0% ↑), 여수 56억원(-1.2%), 광주축산물 도매시장 34억원(-27.1%)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관한 '농산물 도매시장 공익적 역할 재정립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김성훈 충남대학교 교수는 "공영 도매시장보다 일반 법정시장 거래 물량과 금액이 모두 감소하며 거래 위축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도매시장 법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경매과정 전반을 출하자가 볼 수 있도록 경매 시스템을 개선하고 정가·수의거래를 활성화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대국민 의견 수렴, 전문가 논의, 공청회 등을 거쳐 상반기 중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농협 “코로나 의료진 고맙습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박서홍(앞줄 오른쪽 네번째) 본부장과 임직원들이 '코로나19 의료진 감사 응원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힘내라 대한민국, 의료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전남농협지역본부는 지난 19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연일 사투를 벌이며 헌신하는 의료진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의료진 감사 응원 캠페인’을 벌였다고 21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코로나19 국내 확산 1년을 맞아 국

민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숨은 영웅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의료진 응원구호를 함께 외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행사에는 전남 21개 농협 사·군지부 전 직원이 각 사무소에서 함께 참여했다.

박서홍 전남지역본부장은 “전남농협은 의료진과 함께 코로나 중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농협 임직원들이 참여한 ‘의료진 감사 응원 캠페인’ 행사는 영상으로 제작돼 전남농협 공식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텃밭 분양받아 농사 체험하며 힐링~

광주 분량농협, 사랑나눔농장 100구획 선착순 임대 분양

광주 분량농협이 광주시민 100명에게 텃밭을 분양한다. 분량농협은 이달부터 '사랑나눔농장' 총 100구획을 선착순 임대 분양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사랑나눔농장은 도시민들에게 농촌 체험 기회와 휴식 공간을 주기 위해 광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육성 사업'의 하나로 조성됐다. 연말까지 운영되며 광산구 지산동(용진로 459)에 4937㎡(1493평) 규모로 마련됐다. 분양가는 23㎡(7평) 6만원, 33㎡(10평) 9만

원 등이 있다. 수확한 농산물 일부는 지역 소외이웃에 전달될 예정이다.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062-223-0259) 접수만 진행한다. 정성훈 조합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사회적 활동이 위축된 가운데 '사랑나눔농장'을 통해 휴식을 갖고, 이웃에게 사랑도 전하는 보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물의 가치, 미래의 가치’ 영상 공모

수자원공사 다음달 1일까지... ‘세계 물의 날’ 물 부족 경각심 제고

‘세계 물의 날’ (3월22일)을 앞두고 한국수자원공사가 다음 달 1일까지 영상작품을 공모한다. ‘세계 물의 날’은 물의 소중함과 물 부족에 대한 경각심을 전 세계로 확산하기 위해 유엔이 매년 3월 22일 지정된 기념일이다. 환경부가 후원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주최하는 이번 공모는 ‘물의 가치, 미래의 가치’를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주제는 물이 인간과 자연에 주는 다양한 가치를 이해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그 가치를 보전하려는 취지로 선정됐다. 국민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서와 함께 전자우편(lovekwater@naver.com)으로 제출하면 된다. 광고, 애니메이션, 순수창작, 브이로그(vlog), 뮤직비디오, 단편영화 등 형식은 자유롭다.

40초에서 3분 이내 분량의 디지털 영상파일을 내면 된다. 1차 심사를 통해 창의성과 표현력, 공공성, 정보전달력을 평가해 24개의 영상을 선정한다. 선정된 24개의 영상은 유튜브에 공개되며, 2차 대국민 온라인 심사 진행을 통해 12개의 최종 수상작이 결정된다. 수상작은 1, 2차 평가점수 합산으로 오는 3월 15일 공개된다. 수상작은 ‘대학생 및 일반부’와 ‘고등학생 이하부’로 나뉜다. 대학생 및 일반부 대상자에게는 500만원, 고등학생 이하 대상 수상자에게는 100만원이 주어지는 등 전체 1540만원의 상금과 시상식이 열린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수자원공사 공식 블로그(blogkwate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전남 초지 1년 새 13ha 감소

전국 농업용지 전환 최대

지난해 광주·전남 초지면적이 전년보다 13ha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제주도의 초지면적 비중이 가장 컸고, 국내 초지의 절반 이상은 가축 사육용으로 사용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 초지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역 초지면적은 광주

176.6ha·전남 1945.9ha로 각각 전년보다 7.3ha, 6.2ha 감소했다. 지난해 전국 초지면적은 전년보다 0.7% 감소한 3만2556ha로 집계됐다. 1995년 초지면적(6만6301ha)에 비하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초지면적은 농어업 용지와 각종 개발사업에 의한 전용(轉用), 산림 환원 등으로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다. 사·도별로는 제주도에 전체 면적의 48.2%에 달하는 1만5676ha가 있고, 강원 5078ha(15.6%), 충남

2493ha(7.7%), 전남 1946ha(6.0%) 순이었다. 광주 초지는 전체의 0.5%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년과 비교하면 가축유전자원센터 조성으로 초지면적이 273.7ha 늘어난 경남을 제외하면 제주(-197ha), 충남(-109ha), 강원(-52ha), 경기(-46ha) 등 모든 사·도에서 감소세를 보이거나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다른 목적의 땅으로 바뀐 243ha 중 대부분은 농업용지로 사용됐고 고속도로 건설 등 중요시설 건립 목적으로도 일부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으로 환원하거나 초지 기능을 상실해 초지에서 해제된 면적은 314ha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0505-362-90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